

■ 2017년도 국제(한·영)문화예술 공동기금 프로젝트 1차 심의 총평

- 일시
 - 시각예술 : 2017. 2. 6(월) 10:00~18:00
 - 공연예술 : 2017. 2. 7(화) 10:00~19:00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시각예술 : 심상용, 이관훈, 정종효, 최석규, 임수연
 - 공연예술 : 양정웅, 정태봉, 장인주, 한만주, 최석규, 임수연

<시각예술 분야>

2017년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 프로젝트 지원 (시각예술분야)에는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의 및 선정에 임했다. 심의위원들은 본 한국과 영국의 시각예술교류라는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파급효과의 심의기준에 입각해, 각각의 항목에 충분히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지원심의는 지원단체의 인터뷰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차별없이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Skype 화상인터뷰로 진행했다. 심의는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40%), 사업내용의 예술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40%)을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본 지원사업이 영국과의 국제교류인 바, 영국 측 파트너의 수준, 즉 본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가 신중하게 검토되었다. 지원신청주체가 기 진행된 리서치 작업에 가담한 경우, 그 과정의 성실한 이행과 성과가 참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원신청주체의 기존의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지원신청한 사업의 예술적 수준을 간과하지 않고 중요한 심의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기존의 경력이 다소, 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작품이나 기획 자체의 질을 중시하고자 했다. 사업의 내용, 곧 예술작품의 예술성과 기획의 참신함, 독창성 등을 그것이 영국 현지에서 구현되었을 때의 소통 가능성의 맥락과 함께 평가하고자 했다. 이 부분에서 보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기획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본 교류사업의 성격상 또 하나의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사업이 상대국인 영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예술이나 기획에 한국미술을 대외적으로 소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가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위 5명의 심의위원들은 위에 언급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기계적인 정확성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충실하게 심의에 임하고자 했다. 최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별 개별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결과는 각 개별채점을 합해 다득점 순으로 결정했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공연예술 분야>

2017년 한·영 문화예술 공동기금 프로젝트 지원(공연예술분야) 심의회의에 총 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무용·연극·전통예술·음악·문학 등 5개 장르, 총 30건의 지원신청에 대해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장르 구분 없이 인터뷰 심의(해외 거주자 스카이프 인터뷰 포함)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심의기준의 핵심은 한·영 공동협력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양국 예술가 또는 예술기관 간 교류작업의 지속적인 진행여부 등이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40%), 사업내용의 예술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40%)에 따라 각각 채점하고, 이를 수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영국 측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행정상의 진행과정도 배점에 반영했다.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심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용분야 신청 사업들은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모든 사업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 안무가의 예술적 역량을 고려했으며, 영국 측 파트너가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또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을 때, 전략이 분명한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후보자로 선정된 안무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결과로 영국 측과 협업공연을 준비해왔고, 추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할 것을 전망할 수 있었다.

연극분야는 유사한 사업이 많았던 만큼, 사업기획이 독창적인지, 기획자의 전문성은 탁월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상업적인 작품이나 교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전까지의 활동실적과 리서치작업의 충실성, 국제적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했다. 단순 협업공연 사업이 아니라 기획자 간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전통예술분야 사업은 대부분 국악과 양악의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공연을 제작하는 형식이었다.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성실하게 짜여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을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했다.

음악분야의 경우, 해외 음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비롯해 각 사업별로 국제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채점한 결과, 안타깝게도 그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없었다. 추후 음악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인 ‘한국예술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국제교류확대에 장기적인 노력과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학분야 1건은 시를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공연이기에, 공연예술 분야로 통합 집계 심의했다. 계획의 충실성 및 사전 리서치 수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해, 추후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와 영국문화원과의 협의 하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로 선정하게 되었다.

공연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